



6일 오후 경기도 이천장애인체육종합훈련원에서 제10회 광저우 장애인 아시아경기대회 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이 열려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들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참석자들이 선전을 다짐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금·은·동 115개… 기필코 종합 3위 달성

광저우 장애인 AG 한국 선수단 300여명 결단식

2010 광저우 장애인 아시안게임에 참가하는 한국 선수단이 결단식을 하고 종합 3위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장춘제(대한장애인탁구협회장) 단장이 이끄는 선수단은 6일 오후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이천장애인체육종합훈련원에서 윤석용 회장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진동섭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대표 선수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단식을 열었다.

장준배 단장은 이 자리에서 "선수들이 그

동안 간고 닦은 실력을 최대한 발휘해 금메

달 35개와 은메달 24개, 동메달 56개 등 총

115개의 메달을 따 종합 3위를 차지해 국민

의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다짐했다.

장 단장에게 단기를 전달한 윤석용 회장

은 발대식에서 "지난해 개최한 종합훈련원

에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선수들이 최상의

경기력을 갖췄다"면서 "자신의 꿈과 국가대표라는 자부심을 바탕으로 연마한 기량을 마음껏 발휘해달라"고 주문했다.

12일부터 19일까지 광저우에서 열릴 대회

에 19개 전 종목에 198명의 선수를 파견하는

한국은 2006년 쿠알라룸푸르 아시아-태평

양 장애인 경기대회에 이어 종합 3위 수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선수단 본진은 오는 8일 오전 인천국

제공항에서 간단한 출영 행사를 하고 나서

광저우로 떠난다.

/연합뉴스

은 곳에서 처음 열릴 이번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사격과 양궁, 탁구, 배드민턴, 육상, 수영 등에서 무더기 금메달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올해 장애인체전 5관왕에 빛나는 수영의 '얼짱 스타' 김지은(27)을 비롯해 2008년 베이징을 끝내 수영에서 은메달을 딴 민병언(24), 유헌 간판 흥선만(34) 등 장애인 스포츠의 대표 주자들이 총출동한다.

한편 선수단 본진은 오는 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간단한 출영 행사를 하고 나서

광저우로 떠난다.

/연합뉴스

추락 KCC 대반격 이뤄질까

4연패 빠져 하위권… 하승진 합류 이번주 상승세 기대

개막 전 우승 후보로 꼽혔던 전주 KCC가 최근 4연패 높이 빠져 하위권으로 밀려났다.

KCC는 광저우 아시안게임 휴식기 이후 가진 네 경기에서 한 번도 이기지 못하며 5승11패, 8위로 처졌다. 10위 융산 모비스(3승11패)와도 불과 1경기 차이밖에 나지 않아 언제 밀바닥까지 내려갈지 관심할 수 없다.

하승진(25·221cm)이 대표팀에서 복귀하면 한층 전력이 강해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지난달 28일 인천 전자랜드와 경기를 시작으로 2일 원주 동부, 4일 서울 SK에 연패를 당했고 5일에는 최하위 모비스를 상대로도 무릎을 꾸었다.

올해도 최근 2년처럼 '슬로 스타트'로 나섰다가 중반 이후 스포트활 수 있을지 기대

된다.

이번 주 일정은 7일 대구 오리온스와 원정 경기에 이어 11일에는 부산 KT와 홈 경기를 치른다.

이상운 MBC SPORTS+ 해설위원은 "하승진과 크리스 니니엘스의 포지션에 겹쳐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고 있다. 일단 계속 페스팅을 끊고 하승진, 전자랜드 등의 팀에 따른 조작력이 갖춰진다면 상승세를 기대할 만하다"고 말했다.

주중 경기 가운데에서는 10일 전자랜드와 동부의 원주 경기가 눈에 띈다.

12승3패로 단독 선두인 전자랜드와 10승5패로 공동 3위인 동부의 경기는 이번 시즌 최소 실점 1위 동부(66.7점)와 2위 전자랜드(76.5점)의 방대 대결로 관심을 끈다.

/연합뉴스

하승진 외에 전태평(30·178cm)도 11월 초 허벅지 근육 부상에서 돌아와 2일 동부 전부터 출전하고 있지만 팀의 연패를 끊지는 못하고 있다. 최근 9경기에서 1승8패의 부진이 이어지는 중이다.

그나마 전대통령, 하승진이 모두 복귀하면서 점차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KCC는 웹豌豆결정전 우승을 차지한

2008~2009시즌에도 초반 10위까지 처졌다

가 기어이 우승까지 내달렸고 지난 시즌에

도 초반 15경기에서 8승7패로 느린 걸음을

하다 결국 35승19패, 정규리그 3위에 오른

경험이 있다.

주중 경기에서는 10일 전자랜드와

동부의 원주 경기가 눈에 띈다.

12승3패로 단독 선두인 전자랜드(76.5점)

와 10승5패로 공동 3위인 동부(66.7점)

의 경쟁이 예상된다.

전자랜드는 10일 원주 원주 경기에서

10승3패로 4위로 올라섰다.

전자랜드는 10일 원주 원주 경기에서

10승3패로 4위로 올라섰다.